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성황리 개최

‘친환경 축산, 한국 축산의 세계화 - 축산 UP’이라는 기치 아래 전 축산인이 함께 즐기는 잔치인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KOTRA 대전무역전시관(KOTR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1999년 양계 단일 축종 박람회로 시작해 올해 총 221개, 701개 부스의 역대 최대 규모로서 축산분야 뿐 아니라 전 분야의 박람회를 능가하는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박람회에는 지난 박람회에서 취약했던 부분을 수정 · 보완해 규모면이나 수준에서 지난번보다 한차원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한 축산업에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어 줬던 이번 박람회는 사흘간 많은 축산 관련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는데 박람회 첫날, 개막식과 우수축산인 시상식을 시작으로 갑천 둔치 행사장에서는 돼지 ‘황금부위’ 요리 시연, 달걀알집 만들기과 달걀페인팅, 가축모양종이접기 및 찰흙 만들기, 물 풍선 터뜨리기 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져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또한 양돈협회와 양계협회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이용한 갖가지 요리로 시식행사를 벌여 많은 관심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한우협회 또한 한우 고기 시식행사를 실시했으며, 14일 금요일에는 ‘한우인의 날’ 을 기념해 흔히 볼 수 없었던 ‘한밭소싸움’ 대회를 벌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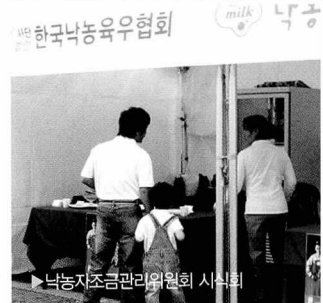
본회는 협회관 부스에서 오리의 영양, 생산 및 출하, 협회소개 등의 정보가 있는 판넬 전시와 오리고기 효능과 요리법 등이 담긴 영상물 전시, 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 오리마을」과 요리책자를 배포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참관객들은 이렇게 국제적인 축산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특히 축산관련 행사임에도 볼거리가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제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속출돼 참관 업체와 참관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2005년 박람회 당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로 국내외 언론을 집중시켰으나 주차장 문제, 냉방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들이 속출한 바 있어 한우협회에서 박람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박람회 참가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도 여전히 3일 동안 인파가 아닌 더위와 싸운 것 같다”며 “또 국제축산박람회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참관 외국인들과 참가업체가 너무 적은 것은 물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말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 개막식 행사에 참석중인



▶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권오을 의원의 개회사



▶ 농림부에서는 주요업무와 계획 등에 대한 판넬을 전시하였다.



▶ 문화 김만석회장의 개막식 기념 테이프커팅 (가장 오른쪽)



▶ 단법인 한국오리협회



▶ 임상규 농림부 장관의 개회사



▶ 다트게임을 통한 상품증정 이벤트를 벌인 대한양계협회



▶ 본회는 오리소비홍보 판넬전시 및 영상물 등을 전시하였다.



▶ 순수 군내산 토종꿀을 다양하게 전시, 한국양봉협회



▶ 전국한우협회는 협회가 걸어온 길을 연대별로 정리해 전시했다.



▶ 농유협은 사육 및 판매활동을 통한 홍보를 펼친 한국양돈협회



▶ 양관리위원회의 이몽식 홍보 처장



▶ 가을임에도 더운 날씨에 충혼천장의 돼지들이 지쳐 누워있다.



▶ 낙농유협에서는 국내 생산중인 다양한 치즈를 전시하였다.



▶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치킨 등 닭과 계란을 이용한 요리 시식회를 가졌다.